

금융당국, 주택금융 정책 윤곽 대출관리 지속·실수요자 구제

금융위, 주택금융 세부내용 검토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본 틀 유지
청년·신혼부부 등 예외 심사 확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주택금융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택금융 정책방향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기본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권의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낮은 1.5% 수준으로 설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과정에서 성과급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기준도 강화했다. 고액·고DSR 대출과 고가주택·고



이석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대출, 다주택자 대출 등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추가 자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청년·신혼부부와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와 밀접한 영역에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률적인 규제 적용으로 실수요자가 대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예외 심사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해 무주택 요건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속으로 소규모 주택 지분을 보유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실수요성이 인정되면 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AIDC 얼라이언스' 출범... 초대 민간위원장 정재현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29

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이하 AIDC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얼라이언스는 정부(과기정통부)와 민간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고, 초대 민간 의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맡고 있는 정재현 SK텔레콤(SKT) 대표가 추대됐다. /산업부

포스코, 브라질 희토류 확보

현지 개발기업 전략적 협력 나서
장인화 회장 "미래 성장동력 강화"

포스코그룹이 브라질 희토류 개발기업과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희토류 장기 구매와 지분투자를 추진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그랜드 하얏트 뱅가르 다홀에서 현지 희토류 개발기업 메테오릭 리소시스와 희토류 원료 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희토류 장기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주요 상업조건 협의와 장기 구매계약 연계 지분투자, 최종 계약 체결 등 프로젝트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메테오릭 리소시스는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추진 중인 칼데이라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중간재를 포스코인터내셔널에 공급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체적으로 구축 중인 분리·정제 사업을 통해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한 뒤 국내외의 주요 영구자석 제조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스코그룹은 희토류 원료 조달부터 분리·정제, 영구자석 생산·공급까지 이어지는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특정국에 편중된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포스코그

룹이 구축하고 있는 희토류 원료 조달부터 분리·정제, 영구자석을 아우르는 통합 밸류체인과 세계 2위 수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브라질의 시너지지를 통해 신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며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북미와 유럽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동모터용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브라질에서 확보한 원료를 글로벌 완성차 공급망과 연계해 원료 수급부터 최종 제품 공급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일 안베스타데이에서 산업자원과 전략자원, 에너지자원을 축으로 하는 '트리플 코어'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자원에는 철강, 전략자원에는 리튬·희토류·희귀가스, 에너지자원에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전략자원 분야에서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노스 리튬 염호와 호주 워지나·마운트마리온 리튬 광산 등에 투자해 원료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이달에는 몽골 징기스칸 국부펀드 홀딩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metro

가계대출 연체율 급증... 심사 강화 불가피

>> 1면 '은행, 빚장 걸었다...'서 계속

특히 올 상반기에는 집값 상승세와 주식시장 호황이 맞물리면서 투자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는 '빚투' 수요가 급증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4조6851억원 늘었는데, 이는 연간 관리 목표치를 약 8% 초과한 수치다. 5대 은행이 하반기에 대출 공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은행권 대출 '빚장'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 연체액도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이유다.

각 은행별 고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5대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단순 평균치는 0.33%로 3월 말의 0.32%보다 0.01%포인트(p) 올랐다. 작년 말의 0.30%와 비교해선 6개월 만에 0.03%p 높아졌

다. 이는 지난 2016년 1분기 말의 0.36%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대손비용 증가와 손실 흡수 능력 저하로 이어진다. 은행은 부실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며, 신용점수를 비롯한 대출문턱은 높아진다. 특히 정부가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중인 만큼, 은행에서는 연체 가능성이 낮은 최고신용자 위주로만 대출을 공급하게 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와 비교해 가계대출 증가분을 규제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면서 "상반기에 신규 공급한 가계대출 만으로도 연간 관리 목표치에 근접한 만큼, 하반기에도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금융의 모든 순간

일 잘하는 증권사가 만든 N2, IMA1

만기보유 시 원금은 지키고, 수익은 기대되는 IMA도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 운용 능력을 지닌
NH투자증권이 잘하는 일
그냥 IMA가 아니라 IMA1을 만나세요

트든한 1위
신용등급 1위 AA+
*26.3.18 한국기업평가 국내 증권사 기준

능력있는 1위
주식발행 및 인수금융 1위
*25년 4월과 5월 EOM 주관 인수금융 실적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1위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4년 연속 1위
*25년 KMAC 증권사 부문

이용고객 1천만 명
*26.3.20 주안통계연보 기준
이용고객 1,043만 명(중개투자 제외)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IMA)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IMA)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본 상품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종합금융투자사)에서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매매세율으로 설정시 중도해지 불가)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당사(AA+, 2026.03.18, 한국기업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A 운용자금을 당사의 고유자산 등과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자기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상 신탁재산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B+/B- 등으로 구분됩니다.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운용 및 관리 등에 따른 보수(수수료)가 발생하며, 기타 운용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1370호(2026-03-27 ~ 2027-03-26)